전자도서 대출권수 '종이' 추월

장비슬 기자 eva6155@khu.ac.kr

대면 학기 전환과 함께 양 캠퍼스(양캠) 중앙도서관 종이책 대출률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에 그친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중앙도서관 도서 대출 권수는 2018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지난 5년간 ▲171,559권 ▲140,068권 ▲58,813권 ▲67,873권 ▲79,630권을 기록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역시 ▲111,659권 ▲90,337권 ▲33,136권 ▲38,821권 ▲44,756권으로 서울캠과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양캠 모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학년도부터 도서 대출 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대면 학기로 전환된 지난해부터 대출 권수가 반등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수치다. 특히 국제캠의 경우 2017학년도 대출 권수가 132,035권으로 2022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세 배 넘는 차이다.

학술정보통계시스템 Rinfo에 따르면, 양캠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한 2020학년도 재학생 1인당 대출 권수는 연평균 2권에 머물렀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1인당 대출 권수가 매월 약 0.16권에 불과한 셈이다. 다만 재학생의 도서 대출 감소 경향은 우리학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 도서관에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4년제 대학교 재학생 대출 권수는 ▲5.2권 ▲4.9권 ▲4.5권 ▲2.5권 ▲2.7권으로 우리학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대면 학기 전환과 함께 중앙도서관 종이책 대출률이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에 그친다.
(사진=대학주보 DB)

이에 대해 서울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김지영 과장은 학생들의 독서 흐름 변화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디지털 매체가 익숙한 학생들의 독서패턴이 인쇄 도서보다는 전자 도서의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낸다"며 "이에 도서관도 학생들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서울캠 중앙도서관 전자도서 대출 권수는 지난 5년간 ▲85,204권 ▲84,629권 ▲115,353권 ▲97,303권 ▲99,011권으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보여왔다. 민형석(국어국문학 2022) 씨 역시 "독서를 할 때 주로 전자책을 이용해 종이책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었다"며 "그래서 학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양캠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장려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캠 중앙도서관은 ▲전자 자료 확대 ▲비대면 예약 도서 대출 서비스 시행 ▲열람실 운영 시간 정상화 ▲(실시간으로 채팅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컨시어지 서비스 시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에쿠(ECO+KHU) 캠페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제캠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시설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4년에 걸쳐 일부 열람실 전면 리모델링 및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 중이다. 국제캠 중앙도서관 학술연구지원팀 이신우 계장은 "도서관 환경 개선 사업과 함께 ▲독서 관련 이벤트 ▲문화행사 ▲후마니타스 강의 연계 정보 활용 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서관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관대 음식축제 개최

김륜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호텔관광대학(호관대)의 'WFF(World Food Festival)'가 5월 1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WFF는 1988년 시작된 후 35년째 호관대 주최로 열리는 음식 축제로, 호관대 학생들이 직접 메뉴 개발, 판매, 마케팅, 판촉까지 진행되며, 경희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호관대 학생들이 제공하는 베이커리(Bakery), 비어(Beer), 다이닝(Dining)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축제의 콘셉트는 'Dreamy; 꿈의 공간'으로, 각 팀은 지정한 콘셉트와 어울리는 음식을 판매하고 공간 분위기를 조성했다. 비어 공간은 '지브리 애니'로, 베이커리 공간은 '봄의 정원'으로 다채롭게 꾸몄다. WFF 비어를 맛본 오카모토 마코(철학 2023) 씨는 "콘셉트와 비어의 분위기가 잘 맞아서 개인적으로 좋았다"며 "특히 오코노미야키가 본토보다 맛있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WFF 총괄 매니저 정호연(조리&푸드디자인학과 2020) 씨는 "WFF는 준비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규모가 큰 축제로, 구성원들이 4일 밤을 새워서 열심히 준비했다"며 "열심히 준비한 만큼 결과도 나와 아쉬운 점은 없지만, 아직 축제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앞으로는 더 많은 분이 축제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2023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 UNESCO 평화교육상 수상 기관
- 국제기구 전문가 양성 교육 기관
- 유엔평화학 관련 유수의 석학으로 이루어진 교수진 (Thomas Weiss, Ram Cnaan, 오준 등)
- 다양한 장학제도 (전액, 성적, 기숙장학 제공)
- 서울캠퍼스와 광릉캠퍼스에서 수업 진행

모집과정	석사과정(정치학석사 및 평화학석사)
모집전공	국제평화, 유엔평화학, 평화안보정책
전형방법	면 접
원서접수기간	4월 17일 ~ 5월 18일
온라인 원서접수	http://gip.khu.ac.kr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문의처	이메일 gip@khu.ac.kr 문의전화 031)570-7012~9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